



'작전맨' 을 찾아라



민병현 서건창 오재원

WBC대표팀 김인식 감독, 상대팀 뒤흔들 '2번타자' 선발 고민



김산 기자의 여기는 오키나와

2번타자는 찬스 연결하는 키플레이어
김감독 "2루수 또는 민병현 2번 후보"
호타준족 서건창·오재원 2루수 경쟁
민병현·손아섭 우익수 전쟁도 '불꽃'



2번타자는 작전수행능력이 뛰어난 타자가 주로 맡는다. 주자를 진루시키고, 중심타선에 찬스를 연결해주는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희생이 필요한 타순이다. 월드베이스클래식(WBC) 대표팀 사령탑인 김인식(70) 감독도 2번타자 후보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14일(한국시간) 일본 오키나와 구시카와구장에서 만난 김 감독은 "연습경기 전까지는 타순을 정해야 한다. 연습경기를 지켜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19일 나하 셀룰러스타디움에서 요미우리와의 첫 연습경기를 갖는다. 아직 물음표를 지우지 못한 마운드와 달리 타순 짜는 일은 그나마 수월한 편이다. 김태균(한화)~이대호(롯데)~최형우(KIA)가 중심타순에 배치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테이블세터 구축까지 완료하면 타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문제는 2번타자다.

부상으로 하차한 정근우(한화)가 정상적으로 합류했다면, 테이블세터 구성은 큰 고민이 없었을 터. 김 감독은 일단 이용규를 1번타자로 점찍고, 그와 짝을 이룰 2번타자 후보를 찾고 있다. "정근우가 빠졌으니, 이용규가 그 자리(1번)에 들어간다"며 "2루수 또는 민병현(두산)이 2번타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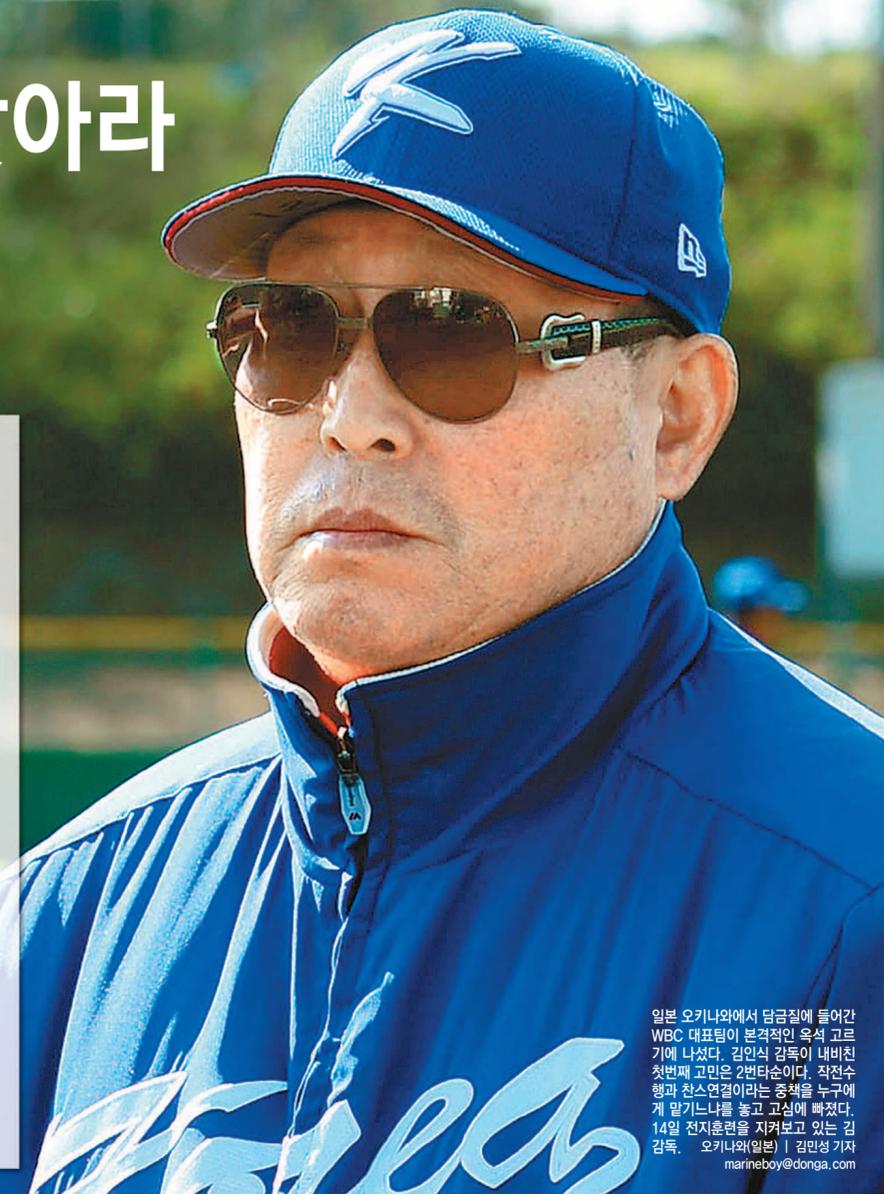
●서건창·오재원·민병현, 2번타자 3파전 막 올렸다!

대표팀 터줏대감 정근우가 떠나면서 2루수 경쟁에 불이 붙었다. 김 감독이 언급한 2루수도 서건창(넥센)과 오재원(두산)이다. 둘 다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 안정적인 수비력을 갖춘 좌타자. 주전 2루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2번타자가 될 자격도 얻는다. 그래서일까. 둘의 훈련자세는 무척 진지하다. 타격, 수비, 러닝까지 훈련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은 물론이다. 김 감독은 "연습경기를 치르면서 고민해보겠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볼 것이다"고 말했다.

민병현도 2번타자 후보다. 정확한 타격과 빠른 발, 수비력을 두루 갖췄다. 필요할 때 한 방을 터트리 수 있는 편지력도 있다. 3년 연속(2014~2016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터트리며 장타력을 입증했다. 김 감독은 "민병현도 2번타자 후보 중 하나인데, 중심타선(3~5번) 뒤에 붙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6번타자를 의미한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오키나와(일본) | posterboy@donga.com



일본 오키나와에서 담금질에 들어간 WBC 대표팀이 본격적인 옥석 고르기에 나섰다. 김인식 감독이 내비친 첫번째 고민은 2번타자다. 작전수행과 찬스연결이라는 중책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4일 전지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김 감독. 오키나와(일본)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뉴스디자인 | 유진한 기자

대작만 돈버는 이상한 한국영화

100억대 영화만 히트...개봉 예정 10여편도 대작 30억 이하 19편 수익률 -41%...시장구조 불균형

한국영화의 대작 편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큰 돈을 투자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대작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50억 원 안팎의 중급영화 제작은 크게 줄어들어 다양성의 기반이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최근 순제작비 규모 100억 원을 넘어서는 영화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한국영화 '더 킹', '공조', '조작된 도시'는 물론 상대적 비수기로 통하는 2월 개봉작도 100억 원이 넘는다.

현재 촬영 중이거나 개봉을 앞둔 작품 가운데서도 순제작비가 100억 원 이상인 작품은 10여편에 이른다. '강철비', '남

한산성', '공작', '대립군', '택시운전사', '군함도' 등 적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220억 원의 순제작비가 투입되는 작품들이다. 1부와 2부를 동시에 촬영 중인 '신과 함께'는 무려 30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경향의 배경은 '투자 대비 고수익률'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016년 한국 영화 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한 상업영화 82편 가운데 제작비 80억 원 이상 작품의 평균 수익률은 53.9%에 달한다. 전체 평균 8.8%에 견주어 월등히 높다. 반면 50억 원 이상~80억 원 미만의 중급영화는 1.1%에 불과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톱10 가운데 100억 원 미만은 '검사외전', '럭키' 단 두 편 뿐이다.

제작비가 낮을수록 평균 수익률의 적자폭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제작비 10억 원 미만 영화는 30편. 단위별 분포(표 참조)로는 제작편수가 가장 많지만, 평균 수익률은 -45.6%로

2016년 한국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투자수익률(추정치)

| 구분 | 전체 상업영화 | | |
|-------------------|---------|-------------|--------|
| | 편수 | 순익분기점 돌파 편수 | 평균 수익률 |
| 80억 원 이상 | 10 | 8 | 53.9% |
| 80억 원 미만~50억 원 이상 | 10 | 2 | 1.1% |
| 50억 원 미만~30억 원 이상 | 13 | 3 | -10.6% |
| 30억 원 미만~10억 원 이상 | 19 | 2 | -41.2% |
| 10억 원 미만 | 30 | 4 | -45.6% |
| 전체 | 82 | 19 | 8.8% |

※ 자료출처 : 2016년 한국영화산업결산

최저치다. 10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영화 19편의 평균 수익률 역시 -41.2%다.

돈을 많이 들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가 큰 제작 환경이 고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영화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2012년부터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다. '도둑

들'과 '공해, 왕이 된 남자'가 나란히 1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한국영화의 연간 관객수가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어선 해이다. 한국영화 관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만큼 수익 '파이'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이처럼 한국영화가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정적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교직원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투자자나 운용 자산이 있는 공적 기구의 직접 투자도 확산됐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낸다.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비교적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한 제작비 30억 원 이상~80억 원 미만의 중급영화는 2015년 34편에서 지난해 23편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그 감소폭이 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 같은 규모의 다양한 영화가 탄탄하게 '허리'를 받쳐주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도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영화제작자는 "지나치게 수익성에 의존한 나머지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작품 제작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혜리 기자 goll1024@donga.com

생명의보험사 심의망 제 2017-444호(2017.01.26)

때우는 충전치료는 개수 제한없이! (90일 면책기간)

VS

큰돈드는 보철치료는 보장금액을 든든하게! (특약가입시)

라이나생명(무)THE건강한치아보험III(비갱신형)

개수 제한없이 재료 구분없이 때우는 충전치료 보장

- 금, 도재(세라믹) 개당 12만원, 레진 등 개당 5만원, 아말감 개당 1만원
- 가입 후 90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시 50% 보장

임플란트 같은 보철치료 든든한 보장금액으로 보장

- 임플란트 100만원, 브릿지 50만원, 틀니 100만원(특약 가입시)
- ※특약: 0~55세 가입시 56세~70세는 상기 보장금액의 50%를 지급
- 임플란트, 브릿지는 영구치 발거 개 당 연간 3개 한도, 틀니는 보철물량 연간 1회 한도 보장
- 가입 후 90일째부터 영구치 발거 후 그 자리에 치료 시 장애 보장,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시 50% 보장

금 등으로 씌우는 크라운 치료 든든하게 보장

- 크라운 치료 20만원(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보장)
- 가입 후 90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시 50% 보장

구주하리권 받아야 하는 소액치료 꼼꼼하게 보장

- 신경치료(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영구치 발거치료(연간 3개 한도)/스케일링(연간 1회 한도)/잇몸질환
- 가입 후 90일째부터 총치나 잇몸질환 치료 시 장애 보장

모든 보장받이도 만기지급 20만원 지급 (만기 생존 시)

0세~70세까지 은가족 가입 가능 (특약은 0세~55세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 예시표]

| 40세 기준 | 여 자 | 남 자 |
|--------------|---------|---------|
| 주 계약 | 23,400원 | 26,200원 |
| [특]보철치료보장특약대 | 5,900원 | 9,750원 |
| 합 계 | 29,300원 | 35,950원 |

※기준: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무보철치료보장특약 5,000만원/보철특약 10,000만원/보철특약: 10년 만기/보철특약: 10년 만기/특약(주계약/보철특약/특약(보철특약)가입시): 주계약 0세~70세/특약 0세~55세/가입 1.0 이후 따라 보험료는 변경 가능

[해지환급금 예시표]

| 경과기간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431,400원 | 0원 | 0.0% |
| 3년 | 1,294,200원 | 0원 | 0.0% |
| 5년 | 2,157,000원 | 112,048원 | 5.1% |
| 10년 | 4,314,000원 | 200,000원 | 4.6% |

※기준: 40세 남자, 10년 만기, 전 기간 납입, 주계약 만기(10년), 특약(순수보장형/가입금액) - 주계약 4,500만원/무보철치료보장특약 5,000만원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080.797.7700

입원운영메드 상담이벤트 무료증정!

※이벤트 참여기간: 2월 15일 ~ 3월 15일

※본 상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40~70세, 10년 만기 납입 보험료 총액이 4,5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만 참여 가능합니다. (단, 40세 미만 가입자는 4,500만원 이상 납입 보험료 총액이 4,5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만 참여 가능합니다.)

※본 상품은 10년 만기 납입 보험료 총액이 4,5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만 참여 가능합니다. (단, 40세 미만 가입자는 4,500만원 이상 납입 보험료 총액이 4,5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만 참여 가능합니다.)

※본 상품은 10년 만기 납입 보험료 총액이 4,5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만 참여 가능합니다. (단, 40세 미만 가입자는 4,500만원 이상 납입 보험료 총액이 4,5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만 참여 가능합니다.)

“때우는 충전치료를 몇 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네!”

“임플란트 같은 보철치료를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네!”